



정교회 주보

정교회 한국대교구



성 루가 복음사도 / 10월 18일

루가 제4주일

제7차 세계공의회 참석 교부들 주일

성 루키아노스 사제순교자,
성 사비노스 주교

제2조 / 조과복음 8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 주일 입당송 / 14, A 42
- 제2조 부활 찬양송 / 81, A 212
- 성 교부들 찬양송 / 85, B 178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 85, A 226
- 사도경 : 디도 3, 8-15 / 봉독서 539
- 복음경 : 루가 8, 5-15 / 124, B 66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성 뽀르피리오스의 지혜로운 말씀 “부모를 떠나고 싶습니다”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20세 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집을 나가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구하기 위해 뽀르피리오스 성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소녀는 성인께 부모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어서 집을 나가려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성인은 무슨 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빚는지,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소녀는 부모가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녀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려 하지만 부모는 매우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부모가 사랑해주길 바라지만 말고 먼저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틀림없는 말

사도 바울로께서는,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세상에 오셔서 그를 믿고 회개하면 모든 죄를 깨끗이 닦아주고 용서해주시기 위해 많은 기적을 보이셨고, 결국은 골고다에서 희생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하느님이시라고 선포하였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하늘 아래 그 어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로께서는 어느 곳을 가든지 오직 이러한 진리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파하고 있다. 그의 그러한 확신은 강하고 정확하게 듣는 이들에게 전하고 있다. “이것은 틀림없는 말입니다.” (디도서 3,8)

성서는 우리에게 “연구하지 말고 무조건 믿기만 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그와는 반대로 “성서를 연구하고 깊이 있게 배워라.”고 말하고 있다.

믿음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 증거는 자연현상을 몰두해서 찾는 과학적인 증거가 아닌 성서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찾아볼 수 있다. 일 더하기 일은 이라는 정해진 공식으로 정의를 내려서 이것을 믿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자유롭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다. 누구든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여 믿어서 축복의 길로 가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가 닫혀서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하여 믿지 않는 불행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믿음의 증거는 먼저 구약과 신약성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증거들은 서로

뚜렷한 역사적인 연결 고리가 있고 그 시대의 많은 이들이 증거하고 있다.

구약성서의 많은 예 가운데서 특히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상징하며, 이삭의 탄생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하고, 이삭의 제물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한다. 천사의 오르내림을 본 야곱의 사다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심을 뜻하고 어린 양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오늘날 신비의 성찬식을 뜻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약시대의 모든 역사적 증거는 신약시대와 더불어 뚜렷한 사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 외에도 수없이 증거하고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느님께 불평 불만했을 때 하느님께서 노하셔서 불뱀을 보내 물리는 사람들은 모두 죽게 하였다. 다시 회개하자 구리 뱀을 만들어 그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모두 낫게 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 누구든지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삼 일 동안 죽지 않고 갇혀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그리스도의 삼 일 만에 부활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자는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부터 태어나실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언을 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현실로 되었다. 이렇게 구약의 역사는 인간이 죄를 짓고 죽어서 영원한

☞ 3면으로 계속

사랑하고 있습니까? 참된 그리스도교적 사랑에 대한 가르침들(2)

☞ 지난 주 주보에서 계속됩니다.

- 사랑은 당신이 사랑받고 있지 못할 때조차도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 시기과 질투는 가장 심하게 스스로를 벌주는 것이다. 그와는 다르게 용서는 가장 큰 보상이다.
- 평화는 사랑이 낳은 딸이다.
- 사랑이 하느님(God)을 사람으로 만들었으며,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하느님'(god)으로 만들 수 있다.
- 사랑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법을 내가 알고 있다는 뜻이다.
- 행복을 함께 나누지 않을 때, 고통과 불행이 찾아온다.
- 만일 당신이 온 세상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다울 것이다.
- 다른 이에게 기쁨을 줄 때, 당신은 그 기쁨을 느끼는 첫째 사람이다.
- 사랑은 이를테면, “당신이 내게 주면, 나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물건이나 상품이 아니다. 사랑은 오직 주는 법만을 알며,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사랑? 아니면 의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사랑이라는 의무’**를 따르렵니다!
- 누구나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는 이에게 더 필요하다.
- 만일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면, 하느님을 얻는 것이다!
-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아는 하느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 아타나시아

☞ 2면에서 계속

지옥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께서는 자신이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세상에 오셔서 그를 믿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주실 것이라는

신약시대의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우리는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더욱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소 식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 지난 9월 30일(토)에 로만 신부의 집전으로 김세미 소피아 유아가 세례성사를 통해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항상 올바른 정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기원합니다.
- 가을 바자회 ▷ 오는 10월 22일 주일 성찬예배 후 『먼 나라 이웃 나라 음식축제』바자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그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루마니아, 세르비아, 미국 등 여러 나라의 다양하고 맛있는 대표 음식들이 준비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부산 성모 희보 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 지난 9월 30일(토)에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알렉산드로스 한의 종 신부의 집전으로 리성준 게오르기오, 김민설 에카테리나 유아들과 김 나탈리아 나타샤, 김성현 니콜라오스, 최원규 엘리야 교우들이 세례성사를 통해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항상 올바른 정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기원합니다.
- 야유회 ▷ 10월 22일(일) 성찬예배 후에 야유회를 가지로 했습니다. 장소는 화명동에 있는 생태공원 C 축구장입니다. 잘 준비해서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모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성모 안식 성당

- 가을 체육대회 ▷ 10월 22일(일) 주일 성찬예배 후에 전주 예술중학교 운동장에서 성당 가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즐거운 게임과 운동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주님의 은총 안에서 좋은 친교를 나누려고 합니다. 잘 준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주간 예식

- 10월 18일(수) 성 루가 복음사도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성찬예배



발행처 : 한국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 (02) 362-6371 / Fax (02) 365-2698 / www.orthodoxkorea.org